

“불교 · 진리와 가치관 추구해야 불교 소설”

2월 20일 선학원에서 열린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의 제4차 월례발표회에서 장영우 교수(동국대 문예창작)는 ‘현대소설과 불교’를 주제로 발표했다. 장 교수는 불교가 국교로 추앙되던 신라, 고려 시대는 물론 백제반던 조선시대에도 문학에 동량이었지만, 근현대에 이르러 불교문학이 다양한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됨과 동시에 양적으로도 위축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대시대보다 현대소설에서 불교문학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고 진단했다.

한국 현대소설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한 장영우 교수는 이광수, 김동리, 김성동 등의 작품에 담긴 불교적 세계관과 상상력에 주목했다. 장 교수는 “불교와 연가론과 윤회설이 한국문학의 저변을 이루고 있음에도 주제론이나 제재론에 그칠 뿐, 불교의 독특한 사유체계나 상상력을 문학기법과 연관해 입문화하려는 체계적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연가와 윤회, 무상과 공을 주제로 한 작품을 불교문학이라고 분류하면서도 정작 불교의 가르침인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문제를 추구하는 작품을 서구적 분류방식에 따라 성장소설로 이해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장 교수의 날카로운 비평은 이광수의 ‘원효대사’, 김동리의 ‘등신불’, 김성동의 ‘만다라’ 등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으로 이어졌다. 그는 “이광수의 ‘원효대사’가 불교에 대한 깊이 있는 표현 없이 이광수 자신의 사상을 전달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평했다. 작품의 “고(苦)도 공(空)이요, 락(樂)도 공(空)”이란 표현을 들어 “왜 고가 공이며, 락이 공인지에 대한 설명 없이 독자의 직관에만 기대는 단순한 동어반복적 진술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불교소설의 대표작으로 이해되는 김동

東大 장영우 교수, ‘한국 현대소설과 불교’ 서주장

1908년 11월 창간된 잡지 <소년>에 발표된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는 한국 신체의 호시입과 동시에, 한국 현대문학의 시작이었다. 2008년 한국 현대문학 100주년을 맞아 한국 문단이 떠들썩한 가운데, 한국 현대소설과 불교의 관계를 다룬 논문이 있어 눈길을 끈다.



2월 20일 선학원에서 열린 선리연구원 발표회. ‘현대소설과 불교’를 발표한 장영우 교수(왼쪽)와 사회를 맡은 고영성 교수(오른쪽).

“불교의 독특한 문학기법 입문화하려는 노력 필요

참된 자아를 찾는 소설에서 새로운 가능성 찾아야 ”

리의 ‘등신불’을 두고 장 교수는 “만적선사의 소신공양을 역사 속 이야기의 핵심 사건으로 설정해, 소신공양이라는 가장 처절하고 감동적이며 인간적인 성불의 한 유형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다”고 하면서도 “정통 불교보다 무속에 습합된 기복불교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했다.

승려 출신 작가 김성동의 ‘만다라’에 대

해 “기존 불교소설의 수준을 단숨에 뛰어넘은 문제작”이라고 평한 장 교수는 “제재, 주제 뿐 아니라 문체와 구성 등 소설의 기법적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말했다. 승려였던 작가의 체험이 바탕된 필선성과 진정성을 담보로 한 작품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한 그는 “상구보리에만 집착하고 중생 제도에 대해서는 침묵한 점은 아쉬

다’면서도 ‘만다라’를 김성동의 작품 중 수작으로 꼽았다.

장 교수가 주장하는 불교소설은 어떤 것일까? 그는 “불교소설은 불교적 세계관과 상상력이 작품의 내적 구성원리로 수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진정한 불교소설은 제재나 등장인물의 신분 등과 무관하게 불교적 진리와 가치관을 추구하는 내용의 작품이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황석영의 ‘삼포가는 길’과 정재봉의 ‘오세암’을 예로 들었다.

‘삼포가는 길’은 열여덟살에 사창가로 팔려온 백화의 이야기로 그녀의 순수한 본성과 참된 사랑의 의미를 전달하는 작품이다. ‘5세 동자의 오도’라는 불교설화를 장작동화로 재구성한 ‘오세암’은 다섯 살 난 어린이가 순수한 염원으로 관세음보살을 염송해 부처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장 교수는 좋은 불교소설을 위해 “작가와 독자는 소재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고, 문단과 불교계에는 불교적 세계관과 상상력의 확장과 불교문학의 외연과 내포를 확장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영우 교수의 발표는 그가 불교소설 대중화를 위해 제안한 ‘불교설화를 현대소설로 재창작하는 작업’과 ‘참된 자아를 찾는 성장소설과 권력담에서 불교소설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한편 ‘세종조의 불교정책’을 발표한 이종우(한국학중앙연구원 종교학과 박사후)씨는 세종조에 실시된 불교정책을 ‘불교통제정책’과 ‘불교옹인정책’으로 구분해 “당시 억불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교를 이용하기도 했고, 억불책을 펴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주장을 했다.

조동섭 기자

우리 학회는 |

(8)대각사상연구원

www.taegak.or.kr

용성 스님 중심으로 근현대 불교 조명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은 1998년 대각회(회장 도륜)의 학술 연구와 인재양성 불사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대각회는 한국 불교의 흥흥조라 일컫는 백용성 스님의 유업을 계승하기 위해 문헌과 불자들이 모여 1996년 설립한 단체다.

문도를 떠나 근현대불교를 고민하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동참은 대각사상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자랑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등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인환 스님(동국대 명예교수)과 홍윤식 교수(동국대 명예교수), 학담 스님(대사주지) 등 학계 및 교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이들이 운영위원으로 대각회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근현대 한국불교사 연구 권위자인 김광식 교수(부천대)와 김호기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최동순 박사(동국대 강사) 등은 연구실무진으로 활동한다.

용성 스님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근세 한국불교사를 중심으로 불교 전반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연구원은 2008년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연구원이 연1회 발간하는 학술지 <대각사상>은 제 10집 발간과 더불어 새로 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지가 되기도 했다. <대각사상> 10집은 보광 스님의 ‘백용성 스님과 한국불교의 계승’과 김광식 교수의 ‘백용성 스님의 전법과 대각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나아가길’ 등 백용성 스님의 사상을 재조명하는 특집호로 꾸며졌다. <대각사상> 10집 발간에 맞춰 연구원장 보광 스님(동국대 교수)은 “앞으로 국내 저명학술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02.581-3138

조동섭 기자



발간 10주년을 맞은 학술지 <대각사상>.

BK21 참여연구자 대상 학술세미나 열려

동국대 불문연 학술세미나 개최

BK21에 참여하는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과정생들의 연구를 중간 점검하는 학술 발표 및 토론회의 장이 열렸다.

2월 19일 동국대학교에서 ‘세계화 시대를 위한 불교사상과 문화 학술세미나’를 주제로 열린 행사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혜원)과 BK21세계화시대불교학교육

연구단(단장 김용표)이 주최했다.

법현 스님은 ‘영적 성숙을 위한 종교간 대화의 방법’에 관한 고찰’에서 종교간 대화를 강조한 대표적 학자인 파니카와 스위틀러의 방법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했다. 법현 스님은 “종교간 대화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종교간 대화의

목적은 “대화에 참여해 얻은 충분한 진리인식에 따라 사는 것으로 자기 이해의 내적 변환을 통해 자기 삶의 발전을 전이시키는 것에 최종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불교의 생사문제와 죽음교육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도업 스님은 죽음을 일반적, 의학적, 철학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연기를 중심으로 한 불교의 생사관과 비교했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는다(生者必滅)는

평범하고도 심오한 문제는 깨달음 전 붓다가 가졌던 고민”이라고 예를 든 도업 스님은 “불교에서 생사는 마음, 즉 인식만 전환되면 해결된다면서 이를 위해 죽음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연세홍씨는 ‘복잡계와 불교경제학에 대한 소고’를 통해 20세기 후반부터 등장한 복잡계 이론을 불교경제학에 접목시키고자 했다. 복잡계 과학에 우선 주목한 연씨는 “고전역학과 통계역학이 자연 및 사회현상의 근본적 설명에 한계에 봉착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된 것이 복잡계”라고 정리

했다. 그는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트랜스휴먼이 대승보살 정신을 가진 자들이라 규정하고, “복잡계 이론을 도입하면 대승불교 사상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유숙씨는 ‘<Ratnāvalī> 제1장의 안락에 관한 연구’에서 용수 보살이 지은 <Ratnāvalī> (寶行王正論)에서 대승불교 실천론의 하나로 제시된 안락(abhyudaya)에 대해 발표했다. 이들 외에도 김경래씨가 ‘Theravāda 불교의 해석학적 특징’ 등 8명의 연구자들이 발표했다.

복잡계는?

자연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성분 간의 다양하고 유기적 협동현상에서 일어난 복잡한 현상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경제학 영역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 복잡계에서는 어느 장소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이 그 주변의 다양한 요인에 작용하고, 그것이 복합돼 차츰 큰 영향력을 갖게 됨으로써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사건의 원인이 된다고 말한다.

부처님 당시 경전읽기

한글 니까야 독송회

부처님 당시 생생한 육성법문을 기록한 경전을 우리말로 쉽게 읽을 수 있는 법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부처님 당시의 경전언어인 팔리어로 된 5부 니까야(디카니까야, 맛지마니까야, 쌍웃따니까야, 앙국파라니까야, 쿨타카니까야)를 한글로 알기쉽게 읽을 수 있게끔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부 니까야를 중심으로 경전을 독송하는 귀중한 모임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개강: 3월 6일(목) 오후 7시
- 장소: 동산불교회관 3층 법당
- 법사: 전재성 교수, 이미명 교수
- 교재: 5부 니까야
- 대상: 한글 니까야 독송을 원하는 불자는 누구나
- 회비: 월 5만원(교재제공)
- 문의: 02)732-1206

수행요가의 상징 요가삼밀지도사과정(2년)

요가삼밀학과

신입생 모집

1.과 정

기간 · 요일	과 정	지도교수
지도사과정	· 요가과정 · 요가이론, 요가수트라, 요가행리, 요가요구, 요가요법, 요가경상법, 아사나, 니야미, 요가사자, 연탄, 요가운동, 차양법	· 요가-안지용 교수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 밀교과정 · 밀교상징체계, 무드라이, 한국전통문화, 인도문화, 밀교사상체계, 만다라사상, 티베트밀교, 밀교명상법	· 밀교-희일법 교수

2.개강일시: 3월 16일(일) 오후 1시 30분

2년 과정 장려지도사 양성

불교장례문화학과

1.교과목

과 정	과 정
1년	· 장례학 이론 · 장묘관념연구 · 상장에 민속학/역사 · 장사법규 · 종교와 불교 · 실습
2년	· 관음보살학 · 현행 장례제도의 제반적 고찰 · 장례시장 경영론 · 불교장례학 · 호스피스와 사별상담

지도교수 · 김미혜 교수, 최정자 교수

2.개강일시: 3월 4일(화) 오후 7시

*특전: 2년 과정 수료 후 불교장례지도사 수여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대학

본대학 사무국 ☎ 02)732-1206~8 / 팩스 02)732-1207
(우)110-140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봉 축

太古叢林 仙巖寺 제28세 주지 경담스님 卽山式

초대의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삼가 법체 청안하심을 삼보전에 축원하옵니다. 아뢰올 말씀은 교계의 대덕스님들과 사부대중을 모시고 **본사 제28세 주지 경담스님의 卽山式(취임식)**을 갖도록 하오니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왕림하시어 이 자리를 더욱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 시 : 불기 2552년 3월 2일 오전 11시 (음력 1월 25일)
◆ 장 소 : 본사 대웅전

韓國佛教 太古叢林 曹溪山 仙巖寺
전화 061)754-5247, 5953